

美대법원, 내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로이터, 법원 일정 예고에
‘위법여부 결정 가능성’ 관측

‘행정부 월권’ 확정되면
국제 경제·미국 정치 충격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당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1월 5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불문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에 대한 예타는 심경을 계속 드러냈다. 그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

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앞세워 제설정한 통상질서에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올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당일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中·日 경제단체 신년회에 중국대사 불참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따른 보이콧 해석

일본 도쿄에서 7일 열릴 예정인 중·일 경제협회 등 양국 경제단체의 신년회에 주일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불참할 예정이라고 TV아사하가 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측은 불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카이치 사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두 나라 간 대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외교적 보이콧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V아사하에 따르면 중·일 경제협회

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이날 신년 하례회를 개최한다. 예년의 경우 주일 중국대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 측은 “우정하오 대사가 하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이번 불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해 온 데다 특히 전날엔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1주일 애도기간 선포

군인 24명 사망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1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6일 1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사망

자들을 ‘순교자’라고 칭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다 사망한 젊은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베네수엘라 군 당국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미군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도 5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